



불교인재 풀 바닥 '위기'

올해로 42주년을 맞는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박재영)는 70년 대 부산 젊은 불교의 근간이었다. 1977년 당시 2000여 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보유하는 등 젊은 불심의 열기가 뜨거웠다. 1971년 당시 부산시지부장을 역임한 현익재(금정중학교 교장) 자문위원은 "그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심이 대단했었다"며 "1975년 11월에 <부산시 대불련 10년사>도 편찬됐을 정도로 부흥의 시기를 보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격동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신정권에 항거하는 대학생 중심의 민주화운동 속에서 모든 동아리가 시위에 참여했고, 대불련 부산지부도 민중불교로 흘러가면서 점차 회원 수가 줄어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1990년대에는 전체 회원수가 300여 명을 밑돌며 매우 한 차례 열린 정기법회 참석자는 50명 선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자 새내기 회원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8년 현재 '9개 대학 총 회원 20명' 사태를 맞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6년 당시 대불련 부산동문회장 오윤표 씨는 "꺼져가는 대학생 불교의 불씨를 살리는데 동문들이 힘을 모아 회원 전원이 전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이미 대불련 부산지부는 위기에 빠져있었다. 박재영 부산지부장은 "1학년 새내기만 단 한명도 오지 않는다"며 "4학년 기존 회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내년도 신입회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불련 부산지부는 완

존폐 기로에 놓인 부산 대불련

반 백년 역사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 이하 대불련)가 상상치 않았다. 전국 150여개 지회가 등록된 대표 청년 불자단체인 대불련이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제주·충청·강원 지부 등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불심수도'로 불리는 부산은 '전체 회원 20명'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사찰 1300개, 불자 200만명, 불교교양대학 9곳에서 연간 1500명 졸업생 배출, 부산 불교는 한국 불교의 자존심이다. 그런 부산에서 대불련이 위기를 맞았으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불련의 위기는 곧 불자인재양성 풀이 말갛진 것을 뜻한다. 무엇이 대불련 부산지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부산 대불련의 위기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9개대 회원수 20명 불과 '고사직전' 회원수 급감·교계 지원 감소 '이중고'

전혀 추억 속에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대불련 부산지부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원인은 요즘 대학생에게 신심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현익재 자문위원은 "요즘 대학생들은 절에서 수행하는 것은 싫어하고 유희만 즐기려는 것 같다"며 "종교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 것이 대불련 부산지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보편화다. 인터넷만 접속하면 큰 스님 법문부터 불교 교리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굳이 사찰까지 찾아가 공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또한 종교는 고리타분하다는 고정관념과 인문학의 위기 또한 대불련에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IMF 등의 사회적 위기 상황을 거치며 등장한 '실용주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

비·법사님 강사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해도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귀띔한다. 재정이 열악해져 아무도 부산지부장 직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익재 자문위원은 "부산시에 규모가 큰 장학회가 7곳이나 있지만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대불련 장학회는 없다"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생과 폐지의 기로에 선 대불련 부산지부. 명맥만 잇는 버티기가 아닌 제2의 도약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 대불련에서 대학시절을 보낸 선배들에게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대불련 부산동문회 김동훈 사무국장은 "졸업 후에도 동문회를 통해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이 대입의 목표인 세태를 반영한 방안도 제기됐다. 현익재 자문위원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대불련을 활용해 봉사중이나 성직에 가산점을 줘 학업에 도움이 되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위원은 "영어가 세계공용어인 만큼 영어로 법문을 하거나 영어템플스테이 등을 대불련에 접목하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포교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5월 25일~6월 2일,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인 이라와디주에서 후원물품을 나누주는 붓가력카타 스님.

"미얀마에 '희망·자비' 전해요"

불교계 단체·사찰서 구호성금 물품 후원 잇달아

사이클론 피해로 신음하는 미얀마 불자들을 돕기 위한 개별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구호성금 및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 범주사 등 16개 사찰과 참여불교재단 등 29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천수)는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8일까지의 류 중심의 물품후원을 받아 7월 4일 1차로 미얀마 현지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월 말경 2차 발송분에서는 생필품·현물 등을 집

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보리수선원 주지 붓다락카타 스님은 "연고 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지원, 씨앗을 비롯한 농사에 필요한 물품 일체 지원, 식량지원 등이 시급하다"며 "보리수선원에서 3만 달러의 성금을 모아 추가로 현지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주지 세민)는 6월 18일 대웅전에서 미얀마 출신의 산디 마미안(마선원장) 스님에게 구호성

금 1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외파사나선원 원장 묘원 법사는 6월 15일까지 모은 성금 2500여 만원을 가지고 17일 출국, 미얀마 양곤에 있는 스님과 고아들에게 보시금을 나눠주었다. 지난 달 쌀 60톤과 기금 1000만 원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한 정토회는 6월 19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미얀마 사이클론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성금 5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김성우·김강진 기자

후 대통령 "대운하 포기" 종교·시민단체 환영 일색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사실상 취소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연 특명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시민·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6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기자회견문에서 상당한 진정성이 느껴지고, 뒤 이어 국토해양부가 후속 조치를 통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운하

사업준비단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명백한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종교·시민·환경단체들은 "아직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울이온, 악일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진화과학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간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수향 전용 **관불수향**

전대항이 그득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조각·공양물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지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회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아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